

**金星電線** 2천 SQ用 접속재 개발  
**金湖** 초광폭 타이어 45시리즈 개발  
**現代電子** 자동차 오디오 DST칩 국산화

▲金星電線

금성전선 전선부문은 국내 최초로 1백54KV CV(架橋 폴리에틸렌) 초고압 케이블의 2천SQ(1SQ는 1평방mm)용 접속자재를 개발했다.

이미 2백 SQ~1천2백 SQ 사이의 초고압 케이블용 접속자재를 개발한 바 있는 금성전선은 이번 2천 SQ용 제품의 개발로 모든 규격의 초고압 케이블용 접속자재를 생산하게 됐다.

초고압 케이블 접속자재는 케이블 포설시 2백m 또는 4백m 단위로 케이블을 상호 접속시킬 때나 케이블을 전력기기와 연결시킬 때 사용되는 자재로 이제까지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해 왔다.

금성전선은 초고압 케이블 접속자재를 전량 국산화함에 따라 해외 초고압 케이블 공사의 턴키 베이스 수출에 유리한 위치에 서게돼 이 분야에서 연간 50억원 이상의 수출 실적을 올릴 수 있을 것으로 보고있다.

▲金湖

금호는 시속 2백40km 이상

무제한으로 달릴 수 있는 45시리즈 ZR급 타이어를 국내에서 첫 개발했다고 9일 발표했다.

금호는 이달말부터 45시리즈를 독일 BMW사 등에 고급 승용차·스포츠카 용으로 수출할 예정이다.

45시리즈란 타이어 바닥폭을 1백으로 따졌을 때 고무부분 높이가 45에 해당된다는 뜻으로 시리즈 단위가 낮을수록 타이어 바닥 폭이 넓어진다.

50시리즈의 경우 바닥폭이 높이의 2배인 셈이다.

금호는 지난해 3월 50, 55시리즈를 개발, 4월부터 유럽에 수출을 하게된다.

▲現代電子

현대전자는 최근 자동차 오디오용 DST칩을 개발, 올 하반기부터 양산에 들어간다. 현대전자는 11일 이번에 개발한

DTS(Digital Tuning System) 칩은 2년4개월 동안의 연구 끝에 자체기술로 국산화에 성공, 자동차용 오디오의 放送選局은 물론 테이프 데크 등 주변회로의 동작을 제어하는 핵심기능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.

이 칩은 마이크로 컨트롤러를 중심으로 방송선국을 위한 PLL(Phase Locked Loop), 액정 디스플레이용 LCD 드라이버 및 주변회로와 접속에 필요한 입출력 포트를 내장하고 있다. 또 진폭과 주파수 변조의 중간 주파수 측정용 카운터 기능 및 동력이 기준치 전압 이하로 떨어졌을 때 이를 감지할 수 있는 감시회로 등도 내장돼 있다.

그동안 국내 주요 카 오디오 생산업체들은 일본의 NEC·도시바·산요 등에서 매년 2백50만 달러씩 수입 사용해 왔다. <♣>

**1년 앞선 특허관리**  
**10년 앞선 선진기업**